

최연의 산 이야기 <13> 가야산5



가야산의 북쪽으로 뻗은 두산줄기 사이의 강당골에 있었던 보원사터, 중앙에 5층석탑이 서 있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천축형의 명당이다.

불가와 선가의 스승이 새 시대를 준비하다

〈佛家〉 〈仙家〉

가야산의 주맥(主脈)은 북쪽으로는 산줄기가 크게 두 줄기로 뻗어 있다. 석문봉(石門峰)에서 갈라져 서북쪽으로는 일락산(日落山)을 일구고 상왕산(象王山)으로 뻗어 있고, 동북쪽으로는 옥양봉을 일구고 수정봉(水晶峰)으로 뻗어 있다.

서북쪽으로 뻗어 있는 산줄기에는 빼어난 수행도량이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일락산 아래 일락사(日落寺)와 상왕산 아래 개심사(開心寺)가 그것이다. 개심사의 주산은 상왕봉으로 그 형상이 코끼리와 비슷하여 이 일대가 금상형(金象形)의 명당이라 하고, 이러한 곳에서는 훌륭한 수행인들이 많이 배출되는데, 지리산 실상사, 장흥 가지산 보림사도 이에 해당된다.

개심사는 1950, 60년대에는 100여 명의 비구니 스님이 공부하던 비구니 강원이 있었던 곳이다. 가야산 주맥의 서북쪽 종턱에 자리 잡고 있어 산사에 들면 개심(開心)이란 말과 같이 마음이 확 열리는 기분이 든다.

개심사의 좌청룡 산줄기는 가야산 주능선에서 힘차게 뻗어 내려와 개심사를 감싸 안아 매우 아름답고 튼튼하다. 이에 반해 우백호의 산줄기는 그 기운이 허약하고 높지도 대웅전의 지붕마루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매우 낮다. 이러한 우백호의 허약함을 비호하기 위해 커다란 소나무들을 우백호 능선 위에 많이 심어 놓아 정기가 흠뻑이 는 것을 막았다.

풍수학에서는 우백호가 약하면 자손이 번성할 수 없다고 보는데 불가에서의 자손은 스님들이다. 그래서인지 개심사에는 수행자들이 오래오래 머물지 않았고 비구니 강

원도 오래지 않아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개심사보다 남쪽에 일락사가 있는데, 비록 터는 좁을 지라도 좌청룡과 우백호가 잘 갖춰져 있고 전망도 좋아 수행자들이 한철 나기에는 그만이다. 그런데 좁은 터에다가 건물을 너무 크게 지었다. 이는 작은 배에다 너무 많은 짐을 실은 격으로 결국은 배는 가라앉게 된다.

동북쪽으로 뻗은 산줄기에도 가야사라는 대가람이 있었으나 임금을 배출하고자 하는 흥선군의 야욕으로 폐사 되고 지금은 흥선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묘가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가야산에서 북쪽으로 뻗어 있는 산줄기는 석문봉에서 돌로 갈라져 하나의 물줄기를 만들어 내는데 이 물줄기를 용연계곡이라 하고 계곡을 중심으로 좌우로 부러놓은 터를 강당골이라고 한다.

강당골은 가야산 뿐 아니라 총남의 서북지방에서 가장 깊은 골짜기다. 그래서인지 예로부터 강당골에는 은자(隱者)들이 많이 살았다. 번잡을 피하여 고요히 도를 이루고 자 드나들던 수행자들도 많았고 난세에 바깥세상에서 도저히 온전한 삶을 보존하기 어려워 몸을 피하려 골짜기로 들어온 이들도 많았다. 특히 이 골짜기가 화엄십찰(華嚴十刹) 중의 하나인 보원사(普願寺)가 있었던 곳여서 수행자들의 발길이 잦았다.

보원사 터를 둘러싼 산봉우리들은 온화하고 유순하여 동글동글한 모습이 마치 막 피어나려는 꽃봉오리와 같다. 부드러운 산봉우리들은 온화하고 평화로운 기운을 품고 있어 상주하는 수행자들에게 화엄정신이 꽃필 수 있는 좋은 기운을 흠뻑 받을 수 있는 좋은 수행처이다. 그러나 사

방이 산으로 꼭 막혀 시야가 매우 좁은 천축형의 지형이다.

천축형의 지기는 속성속패(速成速敗)의 땅으로 한번 일 어날 때는 순식간에 피어나지만 쇠할 때도 그와 같이 빠르게 쇠한다. 그러서인지 보원사는 얼마 못가서 폐찰이 되고 만다.

보원사가 배출한 큰 스님으로는 구산선문(九山禪門)의 하나인 가지산문(伽智山門)을 크게 일으킨 체징(體澄) 선사가 있다. 체징 선사는 우리나라에 선종(禪宗)을 처음 들여오고 현재 조계종의 종조인 도의국사의 제자인 염거 선사를 설악산 진전사로 찾아가 가르침을 청하여 제자가 되어 그의 법맥을 이어서 선종이 크게 발전하는데 많은 공을 세웠다.

그리고 조선 말엽에는 동학도(東學徒)들이 관의 탄압을 피해 강당골에 많이 들어와 살았는데, 그중에서도 김복기(金福基) 선생이란 분이 유명한다. 그는 20대에 만민평등의 대동세상을 이루고자 동학혁명에 참가하였으나 혁명은 실패하고 수많은 동학도들은 죽임을 당했고 살아남은 자들은 쾨쾨이 흩어져 토벌군을 피하여 산속으로 숨어들었다. 김복기 선생도 무인도를 전전하다가 선인(仙人)을 만나 마음 뒤는 법과 의술(醫術)을 배웠다. 결국에는 강당골로 숨어들어 남은 생을 무료로 의술을 베풀고 자신과 가족들은 늘 공평하게 40여년을 살다가 돌아가셨다.

가야산의 남쪽 기슭에서는 만공스님이 세계일화(世界一花)의 시대정신을 일깨우셨고, 북쪽 기슭에서는 김복기 선생이 의술을 베풀며 대동의 세상을 펼쳐보이고자 했던 것이다.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복슬이

10년 전쯤이다.

“너도 세상 구경 좀 해볼래?”

복슬이 트럭 앞에서 피리를 흔들며 떨어지지 않으려 했다. 트럭을 타고 산 아래로 내려 갈 때면 종무니를 따라 산 아랫마을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구불구불 돌고돌아가는 길을 따라 내려가는 차를 따라잡기 위해 복슬이 산을 가로질러 내려갔다. 길모퉁이를 돌아 내려가다보면 숲에서 길로 내려와 다시 차공무니에 따라붙는 복슬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날은 복슬이를 트럭 집간에 태웠다. 복슬이 낮게 앉드려 그 어떤 두려움에 휩싸인 모습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차를 처음 타보니 그런가보다고 생각하며 면소재지인 옥동으로 나갔다. 농협 앞에 차를 세울 때까지 나는 복슬이의 상태에 대해 알지 못했다. 차들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건물들이 복슬이에게 어떤 대상일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다.

차에서 뛰어내린 복슬이는 건물과 건물 사이로 보이는 산을 향해 나아갔다. 급히 부르니 슬쩍 고개를 돌려 보면서 멈칫거리더니 끝내 나를 외면하고 산으로 올라갔다.

“복슬이가 돌아왔어요.”

아내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다.

“저기 버스 정류장에 나가서 혹시나 하여 ‘복슬이 복슬이’ 하고 불렀더니 길모퉁이에서 ‘멍멍’ 거리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앞에 와서는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났어요.”

복슬이는 털도 거무튀튀하게 지저분해진 상태에서 비쩍 말라 있었다. 그런 몸으로 신이 나서 집 주위를 뛰어다니며 자신의 기쁨을 발산하기에 바빴다.

그 뒤로 10년 세월이 푹팍 흘렀다. 복슬이의 배에서 나온 새끼들이 떠나가고 같이 살던 개가 사람의 먹이가 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동안에도 복슬이만은 자신이 다시 찾은 집에서 살고 있다.

강아지 시절, 어린 아들의 손길을 피하지 못하고 플라스틱 자동차의 좌석 밑에 갇혀 아들이 가는대로 끌려다니던 때는 그래도 좋은 시절이었을까? 새로 이사 온 사람이 풀어놓은, 대어섯 배 크기의 개에게 물려 배가 찢어지는 증상을 입었을 땐 개의 운명이 다 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내가 바늘로 꿰매주고 약을 발라준 것이 효과를 보아서 뒷다리를 절룩거리려는 병신이 된 것으로 삶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작년 늦가을. 그 뒷다리를 무엇인가에 또 물렸다. 며칠 동안 보이지 않아 마루 밑과 헛간을 뒤지며 불러도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다시 며칠이 지난 뒤, 하수구로 흘러나오는 물을 훑적거리며 먹고 있는 놈을 발견하곤 가까이 다가가보니 앞다리를 이용해서 겨우 몸을 끌고 나온 상황이었다. 나왔으나 돌아가진 못하고 앉아 있는 것을 비닐하우스 안에 부직포를 깔고 눕혀놓았다. 정신없이 받아먹곤 했던 빵을 통째로 주어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너도 이제 끝인 모양이구나!”

주둥이 옆에 빵과 물을 놓고, 아내가 가져온 우유에 항생제 하나를 타서 코앞에 들이밀었다. 내가 건넨 마지막 인사였다. 주둥이 끝에 우유가 닿자 다행히 혀를 내밀어 핥아 먹었다. 이를 후 살펴보니 빵이 사라진 자리 옆에서 복슬이가 살랑살랑 피리를 흔들었다.

요즘은 신발만 신어도 어디선가 나타나 나를 뻔히 바라본다. 그때마다 나는 ‘저 놈이 내 속을 훤히 꿰뚫어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눈빛을 맞받는다. 뒤를 쫓아와 불쑥 낙엽 밟는 소리를 내어 숲길을 걸던 나를 놀라게 하는 일은 이제 평상적인 일이다. 옆집에 가도 따라와 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뒤를 따라 집으로 온다. 밤에도 따라와 발목에 얹드려 일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문밖을 바라보니 오늘도 녀석은 푸르름을 배겨삼아 마당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배를 간 채 었드렸다. 잠에 든 녀석의 콧소리가 제법 마당을 울린다. 녀석은 문밖의 신발 앞이나 마루 밑이나 헛간이나 풀담 안쪽의 나무 밑이나 마당, 아무데서나 잠을 잔다. 다 자기 집이다. 방안까지 들어오진 못하지만 그 외의 곳은 다 녀석의 공간이다. 이 집이 나와 가족의 집인지 녀석의 집인지 도무지 헷갈린다. 산짐승을 막고, 찾아오는 손님을 제일 먼저 나가 마주하는 것도 복슬이다. 내가 주는 먹이를 먹고 산다는 얘기도 이상하다. 내가 먹이를 주는 건지 아니면 식사를 챙겨 드리는 건지 기분이 안 된다. 누가 주인인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 집이 누구의 것인지 더는 따지지 말고 살자는 것이 내 요즘의 생각이다. 이 집에서 복슬이를 내친다는 것은 이제 가능한 일이 아니니, 그 외의 무슨 생각이 더 필요할까? ■유승도 (시인)

빙의의 시대

증상을 바로 알면 치료법이 보인다!!!



값 10,000원

값 9,500원

빙의의 시대

빙의란 무엇이며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또 그 치료법은 무엇인가?

일평생 빙의치료를 공부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사후 영역에 있어야 할 귀신이 인간한테 접근하는 과정과, 귀신을 천도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등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빙의의 시대 2

〈빙의의 시대〉를 출간한 뒤 수많은 독자와 빙의의 환자, 또 그들의 보호자들을 상담하면서 느꼈던 1권에서 못 다한 이야기를 내놓았다. 이 책에서는 귀신에 접근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조기퇴치의 방법, 본인 스스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

저자 / 일광(逸廣) 선생

오로지 천지인(天地人)의 궁극적 이치를 깨우치기 위해 전국 산하를 떠돌며 수행하던 일광 선생이 문득 회몽의 밝은 빛을 보았으니, 오대산의 한 토굴에서였다. 그 뒤로 사후세계가 확연히 드러나며 영령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 자신의 역할이 그들 귀신들을 안온한 세계로 천도해 다시는 인간세계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빙의의 시대〉는 그러한 마음에서 저술한 일광 선생의 첫걸음이다.

병은 알릴수록 양약이 나타난다!

- 정신질환자
-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무당 생활이 싫으신 분
- 꿈에 죽은 사람이 자주 보이고 기워눕힘에 시달리시는 분
- 환청이나 환각으로 고생하시는 분
- 귀신이 몸에 있다고 고민하시는 분
- 몸에 통증은 있지만 병원의 진단에는 이상이 없는 분
-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좌골신경통으로 오래 동안 고생하시는 분
- 만성 건강회중 환자
- 말기 간암 환자

※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책을 읽은 뒤에 상담해주시고.

상담전화 02) 743-7679, 010-5040-7679